

보도자료

2014년 6월 2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기반국 시청자지원팀 김종영 팀장(☎2110-1290)
시청자지원팀 이병천사무관(☎2110-1291) leebc@kcc.go.kr**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과 난청노인들의 편리한 TV시청을 돕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와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2000년부터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해 왔으며, 2012년 방송사업자에게 자막·화면해설·수화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하였다.

2014년에는 장애인방송 의무화 방송사업자를 156개 사업자로 확대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과 난청노인들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 1만 2천명에게는 59.8cm(23.6") TV를, 난청노인 3천명에게는 음성증폭기를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 보급하는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TV전원과 화면해설방송을 켜거나 끌 때는 물론 채널을 전환하는 경우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수신기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우선 보급하며, 현재 시·청각 장애인 방송수신기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는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고 :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안내자료